

■ 박근종 칼럼

엔비디아 GPU 26만 장 획기적 공급, 한국 ‘AI 3대 강국’ 도약대 삼길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지난 10월 31일 한국에 26만 장 이상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한

다고 밝혔다. GPU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CPU(중앙처리장치)가 복잡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반면 GPU는 단순하지만, 많은 양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엄청난 양의 단순한 수학 계산을 동시에 반복할 수 있어 AI 모델 데이터 학습에 강점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한국이 대규모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되어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세계 최대 AI 기업 엔비디아와 한국의 ‘AI 동맹’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최신 AI 칩 ‘블랙웰(Blackwell)’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 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 장 등 총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Jensen Huang | 黃仁勳)’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특별 세션 무대에 올라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전인 지난 10월 28일(현지 시각)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언급했던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구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

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뒤 이미 1년 치 생산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젠슨 황 CEO도 “AI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이 보여주시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이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엔비디아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단숨에 처리하는 AI 전용 하드웨어인 가속기 시장의 글로벌 절대 강자다. 최신 GPU의 경우 장당 가격이 3만~4만 달러에 달한다. AI 연산 작업에 필수적인 GPU는 ‘새로운 세계의 화폐’라는 평가(투자은행 뱅크 오브아메리카 | BofA)가 나온다.

무엇보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엔비디아 측은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AI 시대’를 맞아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 GPU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만 장 GPU를 ‘소버린(Sovereign | 주권) AI’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지능화하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로봇 생산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지금쯤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 데다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GPU가 2,000여 장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내 AI 산업 인프라(Infra)는 빈약(貧弱)하고 일천(日淺)했다. 이

재명 정부는 AI 100조 원 투자, GPU 5만 장 확보,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정책을 본격화했고, 한국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해 온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선으로써 AI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약대가 마련됐다. 이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AI 기술을 위한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AI 혁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는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는 당면현안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 AI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표되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는 ‘AI 3대 강국’ 도약은 ‘신기루(Mirage)’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한국 AI 경쟁력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 GPU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민·관 윈 팀(One team)으로 추진하는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에 속도를 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자율주행·클라우드 등 산업 전반에서 AI 전환(AI)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AI 기술 경쟁에서 미·중에 크게 뒤처졌는데 오픈AI의 챗GPT 같은 범용 챗봇보다는 제조업의 강점을 살린 ‘피지컬 AI(로봇)’ 역량을 키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번에 확보한 막대한 GPU가 향할 곳은 명확하다. 우리는 챗GPT 같은 범용 AI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제조 AI’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정부가 확보하게 된 GPU 5만 장을 대학과 스타트업에도 공급해 AI 생태계를 완성시켜야만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공장을 보유한 나라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고,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현대차는 모빌리티용 AI 팩토리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피지컬 AI’ 전환에 3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이 거대한 제조 인프

라와 축적된 데이터야말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다.

엔비디아가 이처럼 ‘AI 산업혁명’ 파트너로 한국 기업과 정부를 나란히 만듦으로써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협력과 연대로 AI 산업 발전과 제조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젠슨 황 CEO는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3가지 기본 핵심 기술(소프트웨어, 제조 역량, AI 역량)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나”라며 두터운 신뢰를 보였다. 무엇보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

AI 시대의 속도전은 파격적인 규제 혁파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이 뚫고 정부가 미는 ‘AI 팀 코리아’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 GPU 확보만으로 AI 강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전력·인재라는 세 개의 축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 AI 학습의 원유(原由)인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민간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력 공급망, 냉각 기술, 인력 양성 등 병목도 서둘러 풀어야 한다. 미국은 AI가 강하지만 제조업이 붕괴 수준이고,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 막강하나 최신 AI 반도체 접근이 막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의 제조 데이터’와 ‘최고의 AI 반도체(HBM)’ 그리고 ‘최신 GPU’를 모두 확보한 나라가 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엔비디아의 제안으로 이 강점들을 결합하면 ‘제조 AI’ G3로 도약하는 것이 걸단코 불가능하지 않다. 물들어 올 때 도져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盼)하거나 실기하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범하지 말고 ‘AI 3대 강국’ 도약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AI 주권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인프라 지원으로 뒷받침해야만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이사장)의 회화·전, 소방준감)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법, '오래가게 워크 2025' 개최

11.7.(금)~21.(금) 2주간,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

신규 오래가게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일상 속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서북권 ‘오래가게’를 중심으로 11월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2주간 ‘오래가게 워크 2025’를 개최한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더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라는 의미로, 서울시는 서울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자 지난 '17년부터 생활문화·전통공예·음식 분야에서 가게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미식 관광 수요에 발맞춰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을 중심으로 15개 가게를 신규 선정해 현재까지 오래가게는 총 140개소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여행법’을 주제로, 도심 속 평범한 일상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여행하도록 즐길 수 있도록 ‘오래가게’와 관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7일(금)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을 통해 ‘오래가게 워크 2025’ 전체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시는 카카오톡 채널성과와 협력

해 누구나 손쉽게 서울 곳곳의 ‘오래가게’를 탐방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맵 테마지도’에서 올해 신규 선정된 오래가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저장 인증 시에는 추첨을 통해 카카오페이 1만 원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예약하기’에서는 지정된 오래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질성사이다 레트로’ 음료 쿠폰을 매일 선착순(가게별 50명)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 워크 기간에 웰컴센터 연회(서울시 서대문구 연회로11길 26)를 방문하면 ‘오래가게’의 정취가 담긴 전시, 체험 등을 한자리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팝업을 만나볼 수 있다.

팝업은 7일(금)부터 21일(금)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현장에서 구매 영수증 또는 소셜 미디어(SNS) 게시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오래가게 기념 티셔츠’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오래가게 투어’나 ‘단골 부심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래가게 투어’는 8일(토)과 15일(토)에 서울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 일대에서 총 3차례 진행하며, 지역별 가이드와 동네를 탐방하며 ‘오래가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단골부심콘테스트’는 <태조대립감자국>에서 11월 14일(금)에 열리며, 퀴즈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짬’ 단골을 가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개그맨 박휘순이 MC로 참여해 현장을 유쾌하게 이끌 예정이다.

전통 한옥부터 미래 AI까지...서울시 <문화로 야금야금(夜金)> 가을 프로그램 풍성

<문화로 야금야금(夜金)>, 시립 문화시설 8곳 매주 금요일 야간개방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11월 7일(금) 남산골 ‘한옥콘서트+조향체험’, 운현궁 ‘운현유람기’ 등 이색 전통체험 프로그램 눈길

서울도서관, ‘AI 북토크’,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 달빛 탐방’ 등 미래세대 위한 행사도 풍성

대학로 등 우수공연 1만원 관람 ‘야간공연관람권’ 운영...연극 <피어 날다> 등 5편 제공

쌀쌀해진 11월 늦가을 밤,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온기를 더할 서울시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 <문화로 야금야금(夜金)>이 매주 금요일 밤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시립 문화시설 8곳이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이색적인 공연과 체험 가득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11월 첫 금요일인 11월 7일(금)에는 각 문화시설에서 늦가을 밤의 감성을 더할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국악 공연과 조향 체험을 함께 즐기는 ‘한옥콘서트 취향’이 열리며, ▲운현궁에서는 전통공예 체험과 가을 밤 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흥선대원군의 초대 <운현유람기>’를 진행한다.

늦가을 밤, 지식과 교양을 채우는 프로그램도 열린다. 서울도서관은 ‘AI’를 주제로 3주간 릴레이 ‘방구석 북토크’를 진행해 최연구(7일), 강창래(14일), 이승민(21일) 등 화제의 저자 직강을 선보인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11월 7일(금), ‘미증유의 대동수’ 전시기획자가 직접 들려주는 특별 해설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는 11월 21일(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보조개 사파’가 무대에 오르며,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몽촌토성 달빛 탐방’(28일), ‘반짝반짝



별빛놀이터’(매주 금요일)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체험이 운영된다.

이밖에 ▲서울역사박물관의 ‘한밤의 역사기행’, ▲서울공예박물관의 ‘조물조물 캔들공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수어 통역 전시 해설’, ▲남산골 한옥마을 현대공예 전시 <<집.zip>>, ▲세종·충무공이아기의 상설 전시 및 디지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11월 매주 금요일 밤 시민들을 맞이한다.

한편, <문화로 야금야금>과 연계해 대학로 등에서 열리는 우수 연극·뮤지컬을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야간공연관람권’도 운영된다.

공연 정보 확인 및 예매정보는 대학로 티켓 누리집(www.대학로티켓.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로 야금야금>과 관련된 자세한 행사 정보는 서울문화포털 누리집(culture.seoul.go.kr)을 확인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1월 <문화로 야금야금>은 늦가을 밤의 정취 속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문화적 감성을 채울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특색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빗트리 축제

11월 22일 개막

빗축제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종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시민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세종시 빗트리축제 시민추진단은 지난달 30일 나성동 빗트리 축제 임시 사무실에서 2025년 세종시 빗트리 축제를 다시한번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내자고 결의하고 단체를 결성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응다리 남측 광장 일대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9일간 이어진다.

이번 축제는 세종시 빗트리축제 시민추진단과 세종시교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시민 기업 교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빛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빗축제는 세종시 대표적 겨울철 축제로 자리 매김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7시부터 이응다리 남측 광장에서 펼쳐질 개막 점등식 행사에서는 대형 교회 성탄트리와 골든 불, 각종 빛터널 그리고 다양한 빛 조형물이 동시에 점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동안 주말 버스킹, 크리스마스 마켓, 시민 참여 트리 등이 전시될 예정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겨울의 낭만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빗트리축제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진행되며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모금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백질 구조분석 서비스, 1년 새 2배 성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신약개발지원센터의 단백질 3차 구조 규명 기술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서비스 의뢰건수는 벌써 작년 한해의 2배에 달했다.

최근 신약개발에 있어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절감을 위해 후보물질 설계 단계에서 표적 단백질의 구조분석을 통한 최적결합 형태 예측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약·바이오기업과 학계에서는 단백질-신약탐색물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 단백질 3차 구조 규명 기술서비스를 확대했다.

단백질구조분석팀에서는 ‘첨단 대형연구장비 공유·활용 체계구축 사업’과 제와 연계해 NMR, Cryo-EM, 방사광가속기 등 단백질 구조분석에 중요한 대

형연구장비 활용과 더불어 단백질 시료 제작 및 결정화를 통한 3차 구조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연구자 커뮤니티와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산업체, 대학 대상 전문 컨설팅을 확대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그 결과 단백질-신약탐색물질 복합체 3차 구조 규명을 위한 시료제작 및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구조분석 기술 서비스의 의뢰가 올해 10월 기준 25건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의뢰자의 대다수는 제약 기업과 벤처기업이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 방사광가속기 이용에 필요한 단백질 시료 제작뿐 아니라 NMR, Cryo-EM 이용에 필요한 표지(Labeled) 단백질 및 거대단백질 시료 제작 등 서비스 지원범위를 넓히고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세계타임즈	www.thesegeye.com 7차재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재보: 1661-8385 광고국: 02)717-7272 F A X : 02)717-7273	등록: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서울 가 50106 구독료: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